

5/7/17

설교 제목: 처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라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히브리서 3:1-19

- (히 3:1)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 (히 3:2)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 (히 3:3)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 (히 3:4)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 (히 3:5)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절관주** 출 14:31
- (히 3:6)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써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 (히 3:7)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 (히 3:8)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절관주** 신 33:8
- (히 3:9)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사십 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 (히 3:10)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 (히 3:11)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 (히 3:12)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 (히 3:13)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 (히 3:14)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 (히 3:15)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절관주** 히 3:7
- (히 3:16)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 (히 3:17) 또 하나님께서 사십 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절관주** 민 14:29, 고전 10:5
- (히 3:18)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 (히 3:19)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히브리서 1, 2 장에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신과 같이 여기던 천사와 비교합니다. 유대인들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천사와 견줄 수도 없을 만큼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2.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낸 자라는 것입니다.
3. 그러므로 천사의 지위는 비록 그들이 영적 존재이긴 하지만 인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꼽는 선지자 모세와 비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 전해 준 모세를 선지자 중 가장 위대한 인물로 추앙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자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변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먼저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야 말로 원조 사도이고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히 3:1)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믿는 도리’란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도는 ‘복음 증거를 위해 주님으로부터 직접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인 열 두 제자를 지칭합니다.

직계 제자가 아니면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 생전에 함께 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자칭 사도라고 했을 때 논쟁이 벌어졌고 사도권 시비에 휘말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사도라고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원조 사도라는 것입니다.

2.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입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백성을 대변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나 뜻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을 대표하고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분의 뜻을 전함으로써 양자간의 화해를 도모하고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인간이었던지라 이 역할을 완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반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되어 인간을 완전하게 대표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비교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는 집을 지은 자요 모세는 그 집이라는 것입니다.

(히 3:2)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히 3:3)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히 3:4)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을 지은 자가 집보다 더 존귀함은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교할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2.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 모두 하나님께 신실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집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집의 아들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 3:5)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히 3:6)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들과 종 중 누가 우위인가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역사의 예를 듭니다.**

(히 3:7)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히 3:8)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는 출애굽기 17 장에 나오는 므리바 사건을 가리키는데 이 사건은 민수기 20 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심각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그로 인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특별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민수기의 기록을 통해 이 사건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민 20:2)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민 20:3)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 (민 20:4)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 (민 20:5)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 (민 20:6)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와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 (민 20: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민 20:8)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 (민 20:9)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 (민 20:10)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 (민 20:11)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 (민 20:12)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 (민 20:13)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므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출애굽하여 광야를 걷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자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고 나온 모세에게 원망을 퍼부으며 다투었습니다.

왜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이 고생시키고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는 겁니다.

이 사건을 접하는 우리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하기도 하지 아니 아무리 물이 없어 목이 마르다고 해도 430년 종살이 하던 자신들을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준 은혜를 잊고 어려움이 닦쳤다고 금방 마음을 바꾸어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광야를 걷고 있는 그들에게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간 물이 없다고 그동안의 은혜도 잊고 어찌 저럴수 있단 말인가라고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그들이 잘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우리도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 20: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 20:8)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대로 시행합니다.

(민 20:9)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민 20:10)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민 20:11)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러나 모세도 사람인지라 자신의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분을 터트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쳤다'는 말은 '살해하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굉장히 강한 어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면전에서 성질을 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모습을 보인 모세를 향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민 20:12)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후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느보 산에 올라가 약속의 땅을 바라 보며 하나님께 나도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고 싶다고 나로 하여금 저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시면 안되겠느냐고 애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히 한마디로 거절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목에서 저는 정말 평평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데는 이유가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모세에게 가장 좋은 길이었음을 알고 있지만 평생 감당한 사명의 결실을 눈 앞에 두고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직전에 죽어야 하는 모세의 심정이 오죽하랴 싶어서.....

**저자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범죄를 또 다시 저지르지 말라고 합니다.**

(히 3:9)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사십 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히 3:10)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히 3:11)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히 3:12)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히 3:13)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 3:14)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출애굽 1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출애굽 1 세대들은 순종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다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저자는 이런 과거의 불행을 들추어 내어 다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모든 성도는 처음 확신한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과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이며 그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의심하지 말고 믿고 견고히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됩니다.

(히 3:15)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히 3:16)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히 3:17) 또 하나님이 사십 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히 3:18)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란 ‘믿지 않던 자’를 뜻합니다.

불순종은 곧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은 불순종으로 나타났으며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그 결과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 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1.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2. 모든 신자들은 처음 확신했던 그 하나님의 진리를 주님 오실 때까지 견고하게 잡아야 합니다.
3.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안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확신했던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견고히 붙잡아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명심하셔서 낙오되는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았으면 합니다.